



Hello! I am Sister Vivien Linkhauer. I entered the congregation in 1958. I first got to know the Sisters of Charity when I attended Elizabeth Seton High School. There was a great spirit among the Sisters there and since I had always wanted to be a teacher, I was drawn to our community. The schools were so crowded with



students at that time when I entered that we were sent out to teach as postulants. I had 45 third graders! As the years went on, I earned my degree in French at Seton Hill College and eventually received advanced degrees from Tufts University. Before going to Tufts I spent three years at Seton Hill College serving as the Assistant to the Dean of Women. I really love college age students!



I returned to teach at Seton Hill College in 1976 and also spent two years at St. Vincent College before beginning my journey into administration, first as the Academic Dean at Seton Hill College and then on the General Council of the congregation. I was the contact person for Sisters Young Son Kim and Seon Ja Lee when they first came to the USA to minister in Chicago. Later, I returned to Seton Hill as the Associate Dean for Graduate Studies, then became the US Provincial Superior for ten years and finally went back to Seton



Hill University as the Vice President for Mission and Identity. I feel very blessed to have been able to serve in these positions and it gave me wonderful opportunities to get to know our Korean Sisters and to visit South Korea, China and Ecuador.

Last year I spent the year at our Sister of Charity North American Federation's House of Charity in New Orleans, a beautiful multi-cultural city! Today I enjoy volunteering in the Seton Hill University Archives, taking Caritas Christi Sisters to their doctors' appointments and doing Mission Appeals.





안녕하세요! 비비안 링카우어 Vivien Linkhauer 수녀입니다. 저는 1958년에 입회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을 알게 된 것은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 Elizabeth Seton High School를 다닐 때입니다. 학교 수녀님들이 훌륭한 영성을 지니고 계신 데다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수녀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입회할 당시에는 학교마다 학생이 넘쳐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청원자 때 이미 학교 교사로 파견받아 3학년 학생 45명을 맡았지요! 몇 년이 지나 씨튼힐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터프츠 대학교 Tufts University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터프츠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전 3년 동안은 씨튼힐 대학에서 부 학생처장 Assistant to the Dean of Women으로 사도직을 했습니다.



1976년에 다시 씨튼힐 대학으로 돌아와 가르치고 세인트 빈센트 대학 St. Vincent College에서도 2년 동안 가르친 후에 행정 사도직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씨튼힐 대학의 교무처장 Academic Dean을 맡았고 그 후에 수도회 이사가 되었습니다. 수도회 이사직을 할 때 처음으로 미국에 와 시카고에서 사도직을 하는 김영선 수녀님과 이선자 수녀님의 연락담당을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씨튼힐 대학으로 돌아가 대학원 부학장으로 일한 후 수도회 미국관구장이 되어 1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씨튼힐 대학에서 사명과 정체성을 위한 부총장 Vice President for Mission and Identity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행정직을 맡아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수녀님들을 알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 에콰도르도 방문하는 멋진 기회를 갖게 되었지요.

작년에는 북미 사랑의 수녀회 연합회가 아름다운 다문화 도시인 뉴올리언스 New Orleans에서 운영하는 하우스 오브 채리티 House of Charity에서 일 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지금은 씨튼힐 대학교 고문서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카리타스 크리스티에 사는 수녀님들을 병원에도 모셔가고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 본당에서 강론하는 미션 어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